광주 '양림동·ACC·동명동' 잇는 특화관광지 조성한다

광주시, 양림권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획 용역 "차별화 한 개발 통해 꿀잼 관광거점지로 육성할 것"

광주시가 양림동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동명동 카페의 거리를 잇는 체류형 명 품 특화관광지를 조성한다.

4월30일 광주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0 년까지 조성한 양림동 역사문화마을을 중심으 로 광주공원·사직공원~국립아시아문화전당 ~동명동 카페의 거리를 잇는 신활력 관광벨 트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양림권역 관광자원화사업 기본계 획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0

광주 관광1번지로 떠오른 양림동은 기독교 선교 문화유산을 중심으로 한 광주 근대 역사 문화의 집적지다.

10여 년 전, 어르신 4~5명이 고철로 노후 주 택 골목길을 꾸민 '펭귄마을'에 카페·식당이 속속 들어서면서 광주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했 다. 콘텐츠 정체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잠시 침체기를 맞기도 했지만, 거리두기 해제와 함 께 다시한번 봄날을 꿈꾸고 있다.

초입길엔 여행자를 위한 쉼터와 전시 공간 을 갖춘 양림문화샘터도 세워졌다. 골목비엔 날레 등 각종 전시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눈 길을 끄는곳이다.

양림역사문화마을과 인접한 국립아시아문 화전당은 과거·현재의 문화예술과 혁신적 아 이디어·신념이 만나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결 과물을 생산해내는 국제적 예술기관이자 문화 교류기관이다.

5·18 민주화운동 속 인권·평화의 의미를 예 술적으로 승화한다는 배경에서 출발, 2015년 11월 개관했다. 넓은 광장과 함께 시민들의 다 양한 목소리가 공존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자 리매김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바로 옆 동명동 카페의 거리는 2016년부터 본격적 상권이 형성됐다.

대표적 구 도심인 동명동 주택가가 감각적 인테리어의 카페와 식당으로 변신했다.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핫플레이스·셀 카맛집으로 불리며, 2030세대의 명소로 떠올

광주시 관계자는 "차별화 한 개발을 통해 양 림권역을 꿀잼 관광거점지로 육성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김재환기자



양림동 공예특화거리. (사진=광주시 제공)



"지속가능 에너지 공동체 실현" 광주 광산구에너지센터 개소 광주 최초 에너지전환 중간지원 플랫폼

지역특성에 맞는 에너지정책 개발, 시민 참 여 에너지전환 등을 지원할 광주지역 최초 에 너지전환 중간지원 플랫폼인 광산구에너지센 터가 4월27일 공식 개소했다.

광주 광산구는 이날 오후 평동종합비즈니스 센터 야외마당에서 광산구에너지센터 개소식 을 개최했다. 개소식은 박병규 광산구청장, 정 무창 광주시의회 의장, 김태완 광산구의회 의 장 등 시·구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업 관 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경과 및 향후 계획 보고, 현판 제막식 등으로 진행됐다.

평동종합비즈니스센터 1층에 마련된 광산 구에너지센터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에 너지전환 중간지원 플랫폼이다.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광산구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 역에너지센터 설립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날 문을 연 광산구에너지센터는 호남대 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을 맡는다. 앞으로 △ 지역에너지 거버넌스 구성 및 운영 △에너지 전환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 △에너지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산업단 지 에너지효율 진단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 급 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형택기자

광주 문화예술 소풍 '아트피크닉' 개막

중외공원 등 5개 자치구 공원서 11월11일까지 매주 토요일



지난 4월29일 개막한 2023 광주 아트피크닉 (사진 =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가족 중심의 도심 속 문화예술 소풍 2023 아트피크닉을 마련했다.

4월30일 광주시에 따르면 '우리가족 상상 놀이터'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아트피크닉은 전날 개막식을 시작으로, 중외공원 등 5개 자치구 공원에서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프 로그램을 선 보인다.

아트피크닉은 미디어아트기부열차 에어 바운스·아트블록 놀이터 등 가족단위 놀이

프로그램과 11가지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 지역유관기관 연계 협업프로그램으로 채워 졌다. 매주 토요일 총 20회 운영한다.

미디어아트기부열차는 기부함에 500원 이 상 넣고 탑승할 수 있다. 모금한 성금은 시리 아·튀르키예 지진과 내전 구호성금으로 기 부할 예정이다.

에어바운스와 아트블록 놀이터는 아이들 과 가족이 함께 쉬고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공기주입식 놀이기구와 오감발달에 좋은 블 록놀이를 제공한다.

9월에는 유치부·초등부 대상 '희망그리기' 를 주제로 아트미술제를 개최한다.

문화예술체험 프로그램은 디퓨저・내손으

2023 아트피크닉은 7~8월 혹서기를 제외 한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열린 다.

로 그리는 미러아트·청바지 업사이클링 가

방 만들기·반짝반짝 레진키링 만들기·공깃

가족단위 관람객을 위한 문화공연 프로그

지역 내 실력있는 뮤지션을 초청, 국악공

연·버블매직쇼·팝페라 공연·금관 5중주 공

연을 선 보인다. 오는 10월에는 누구나 참여

가 가능한 제1회 아트피크닉 버스킹대회를

돌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램도 펼쳐진다.

개최할 예정이다.

서선옥기자

전남도, 올해 일자리 12만개 취업자 98만5천명 목표

일자리 대책 세부계획 공시…241개 사업 3조9천628억 투입

전남도는 '2023년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수립·공시하고 일자리 12만 개 창출, 고용률 69.5%, 취업자 수 98만 5천 명 달성을 위한 4 대 전략 14개 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으뜸 일자리 창출로 청년이 정착하는 전남' 을 비전으로 첨단·전략 산업 중점 투자유치 및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 등 241개 사업에 총 3조 9천6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전략으로 ▲산업 전환 대응 미래 일자 리 창출 ▲전남형 일자리 혁신 ▲대상별 맞춤 형 일자리 지원 ▲도민 밀착 고용안전망 강화 등 4대 전략, 14개 과제를 추진한다.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는 일자리 목표와 대 책 공시를 통해 지역의 책임성·자율성을 높이 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다음 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 대상 일자 리 대상 평가 기준이 된다.

전남도는 매년 안정적 고용지표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전환 등 산업환경 변화 가 속화, 생산가능인구 지속 감소, 인구 유출 심화 등으로 일자리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청년 선호 일자리 확충 및 첨단·전략 산업 중심 일자리 창출력을 강화하고, 외국 우 수인력 확보, 조선업·농촌 인력수급 불안정 해 소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중점 대응할 계획이다.

유현호 전남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경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일자리 선제 대응 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전남농협, 수출활성화 결실…우수조직 선정ㆍ수출탑 수상

농협전남본부(본부장 박종탁)는 최근 농협 경제지주가 주관하는 2023년 농협 수출전문 조직 워크숍에서 전남 관내농협이 수출탑 수 상을 비롯해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고 4월30일

이날 시상식에서 2022년 우수 수출전문조직 으로 나주배원예농협, 광양원예농협이 선정됐 으며 나주시조합공동사업법인과 순천연합조 합공동사업법인이 100만 달러 수출탑을 수상 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수상은 지난 코로나19 장기화와 어려 워진 대내외 수출 환경 속에서도 농협과 지자 체, 수출농가의 노력이 삼박자를 이뤄 만들어 낸 값진 결실이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